

배똥똥이의 모험

한 영 석

넋날도 오래된 넋날호랑이가 말한다 등아조 오랜넋날
에엿던 처에 구차한 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배똥똥이
가 똥똥하였습다 그 아희가 자람을 마라 배는 정정똥
똥해지고 기운은 한 입시만 엿습다 그리코 엿을 쪼부
려 씨를 도질하였습다 그리하여 아희가 열댓살 때
는 힘으로는 자 씨를 으르든 누구를 팔든 하고 아희를
당할 사람이 엿습다

「배똥똥이」 엿던 날 새가 하기를 나는 이리 케 집해 만
는 것보다 는 구정이나 마음 뜻도 라 단 나다 가 오 겠다 고
심을 하고 父 母 님을 리 별하고 집을 떠 나 갔 습다 아 더
인 지 한 입시가 나 님 가 엿던 사 람 이 산 에서 나 무 를
쪼 개 는
대 독 기 도 엿 시 그 남 자 기 에 팔 로 나 무 를 쪼 저 서
쪼 개 고
잇 습 습 다 배 똥 똥 이 가 그 것 을 보 고 나 무 아 미 러
분 을 쪼
쉬 며 말 하 기 를 내 가 이 세 상 에 서 제 일 가 는 장 사
로 알 엿
니 저 것 보 아 라 하 고 할 직 하 엿 습 다

「배똥똥이」 여보당신은 기운이 얼마나란길내독기도

가지지안어하고 팔로 나무를 쪼를 낫가 하여 간우려인사
나면저합시다 나는 배똥똥이라 고 합니다
「독기팔」네 나는 독기팔이라 합니다 그간 평안하십
가

「배똥똥이」네! 그럴나와 처兄弟를 매질시다 그
편우려구가 된이 되겠다 쪼를 한 번 해서 의이는 자가
이 되기로 합시다 독기팔이 그럴그리 합시다 두리
쪼를
해서 똥똥이가 엿습다 그리하여 똥똥이가 된이
두
兄弟가 어 대 를 한 참 가 나 님 가 엿 던 사 람 이
오
음 을
누
는 대 목 포 수 쪼 다 저 듯 따 쪼 다 엿 습 다

「배똥똥이」여보당신은 무슨사관이길내오음을그려
케만이지시오

「오음똥」네 나는 오음똥이라는 사람인데 오음은 내
구고심은 대로 놓는다 내가 쉬지만 안코 누는 날이면 세
상
이 오 음 에 잘 기 계 할 수 도 엿 습 다 그 런 대 당 신 은
무
슨 사
람 이
길 내 오 렷 케 똥 똥 하 오

「배똥똥」그리기내일흥이 배똥똥이라 저요우려
심한데 세게 일주나한번해봅시다 그리하여 쪼三兄弟
가 되어서 어대들을 가 나 님 가 배 를 가 지 고 도 타 단 이
는
사
람 이
잇 는
대
그
사
람 은
세
상
에
나
서
조
조
일
이
나
한
다
고

배를가지고한이다가 집흔들이잇스면 돈도아니맛고배
를태워주는사람인데그사람도엿이엇서배를제가지
고단입니다똥똥이는쪼그사람을보고사살이야기이
를
하
야
쪼
兄
弟
를
상
엿
습
다
그
러
서
별
서
四
兄
弟
가
되
엿
는
대
쪼
어
대
로
가
나
 님
 가
엿
던
사
람
이
잇
는
대
그
사
람
은
음
식
을
일
마
던
지
앤
드
는
재
조
를
가
지
고
잇
습
다
쪼
兄
弟
를
삼
아
가
지
고
五
兄
弟
가
쪼
가
는
대
한
곳
에
엿
던
사
람
이
한
코
구
명
은
막
고
한
코
구
명
으
로
만
무
엇
을
알
고
잇
는
대
배
똥
똥
이
는
무
엇
을
그
리
케
부
느
다
고
말
엿
습
다

「바람」네 나는 일흥이 바람이라는 사람인데이 세상 바
람은내가다불게할라면하고아니불게할라면안불게할
수가잇습다

「배똥똥」그런대왜코구명하나는막고계심닛가하고
무엇습다

「바람」코구명을막는이유가잇지요내가여름이면한
코구명으로숨을쉬고겨울에는어름이얼지안습닛가겨
울에는무코구명을모다타는키때문에바람이넘어나서
출고어름이여는것이안말습입니다

「똥똥」그럼당신이 숨계할수도잇지요
「바람」두말하면잔소리되지요

「똥똥」그럼나하고가쳐세계를한번일주하는것이잇
더똥습닛가

「바람」그것도똥습다그대六兄弟가되어서 그중에
똥똥이가제일큰兄이되엿습다六兄弟가다가날이저
물
어
저
물
어
가
려
고
주
막
을
차
에
별
리
조
공
아
케
보
이
는
물
을
보
고
차
자
가
닛
가
오
막
사
리
집
한
채
가
잇
는
대
집
안
은
중
용
했
습
다

「똥똥」여보시오구명계심닛가(그러닛가)안으로부
러쪼부라진할머니가나오시더니누구를차즈심닛가

「똥똥」내우려들은六兄弟가길올가다가날이저물어
서하로방목어가라고엿습다다어렵습다다마는하로방
만
자
고
가
계
해
주
심
시
오

「할머님」그럼드러들오시오안내를밧아드러가서방
차려주는것을먹고이야기가사작되엿는대

「할머님」당신들도六兄弟심닛가나도아들이六兄弟
가
잇
는
대
오
늘
은
엿
데
똥
드
려
오
지
를
안
습
다
아
마
오
래
지
안
어
서
드
러
들
오
겟
지
오
조
금
잇
다
가
말
리
저
총
소
리
가
들
넋
다

「똥똥」이것이무슨소리일닛가?
「할머님」오!인제야들어오는구나이것이우려아를

들이 드려온다는 방포입니다

한참 있다가 하던게 아니라 장사여섯명이 호랑이를 만히 잡아가지고들어왔습니다

「할미님 왜오물은이러케들늦게드리오느냐?」

「장사」오물은호랑이가만이있어서다잡지도못하고 고생만했습니다 밤이나 주세요 그런대저것들은무엇하 는사람들인대남의집에마드러와안것습닛가

「할미님」그사람들은긴가든사람으로그이들도六兄弟란다고대일이저물어서죽어가라고했다

「동생」저이들은긴가든사람인대날도저할고또이집 에유명한장사들이있단말을듯고차저되러왔습니다

「장사」그때우리보고무슨말이잇소

「동생」다른별명은잇스나우리도六兄弟인대힘파재 조도만아서당신들과무슨일이를해보려고왔는대우리 六兄弟와당신六兄弟가엇던연이재조와힘이만은가내 이를해봅시다

「장사」이런되지못한놈들조고만놈들이내가다무 었이나이장사들은교만하기위어입고약한사람은막싸 려주기만하는나를놈들이나

「동생」별말할것십시한번해보자첫째애우리쓰름을

해보자그래서쓰름을해본결과동서이연이연습니다

그리닛가그째야장사네연이분이나서

「장사」우리다른것을해보자고하엿습니다

우리저산에제일큰나무가두개가잇는대그나무를한아 씩만하게지고그것을누가먼저잡나서장작을만드러면 저죽거늦키로하자

「동생」그것종라그럼지금부터시작한다장사네편들 은목기를가져온다음을가지고와서살르느라고분주하 다동생이전은잠만자고잇습니다

「장사」저놈들은잠을자닛가그동안애우리가먼저해 노르저놈들을정을쳐노차하고싸르고잇습때애동생이 가이러나서

「동생」교만들자고보자하고모도이르켜가지고보 닛가겨우나무를쓰러트려노왔습니다

「배동생」애야목기팔아볼릿습니다

「목기팔」네! 좀더죽겠는대왜부르십시오

「배동생」이나나무를살라서장작을만드려노와타우리 는부글러이니

「목기팔」네하고팔로한번치닛가나무가넘어갔습니 다그남전속력으로장작을때노르보닛가장사들은아직

도한도못했습니다

「배동생」의보무엇을올하오우리는잠을실컷자고도 님서때노와쓰고거보시오당신네풀이쓰졌지요

꽃파는少女

東京 林 長 順

나는 엇던 동모와가치

花月圓 가는길에

總持寺를 드러가다

꽃파는 少女를 보았습니다

「아아 여염부고 아름다은

꽃파는 少女의

그대의 그웃은 구구의계파는가」

가만가만히 무러보니

아득까지 남았습니다」하고

꽃가지들을보고 밤곳이 웃습니다

一九五三年十月十日



「빛남의 빛남빛적 부러님제실제에
부러님제 愛供養을나든美風